

게임업계 연말연시 이벤트 풍성

크리스마스 · 방학 등 성수기 수요잡기 총력

온라인게임업계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신규게임 출시, 대고객 이벤트 등을 통해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. 이는 각급 학교의 방학과 함께 크리스마스 등 최대 성수기를 통해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. 이에따라 게임업계의 연말연시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용면에서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중견 게임업체인 KRG소프트 · 블리자드코리아 · 조이온 등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열었다.

KRG소프트는 최근 자사의 온라인게임인 <열혈강호 온라인>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벤트를 개최했다. 열혈강호 온라인은 현발과 탐 대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교체, 밤에 화려한 야경을 선사하는가 하면 만물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산타복 특별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.

블리자드코리아는 <월드오브워크래프트>의 크리스마스 특별사은 이벤트를 지난달 16일 오후 5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했는데 이 기간 중 유저들은 보다 저렴한 정액제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.

조이온도 자사에서 서비스중인 경제 온라인 게임 <천하제일상 거상>에서 '거상 크리스마스 대 이벤트 특명: 크리스마스 행복 사수!' 이벤트를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.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'빼앗긴 선물상자를 찾아라' 와 '잃어버린 양말을 찾아라' 등 총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. 관련 퀘스트를 수행한 유저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PC와 블루투스 휴대전화, LCD 모니터, PSP벨류팩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됐다.

엔씨소프트 · NHN · KTH 등도 연말연시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신작을 공개하는 등 고객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엔씨소프트는 게임포털 '플레이엔씨'에서 <엑스틸>의 2차 비공개 시범서비스와 새로운 웹보드게임 <골든하이로우>의 비공개시범서비



스를 진행하고 있다.

NHN도 캐주얼 격투게임인 <권호>를 이달 중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마지막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막바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또 게임포털 <한게임>에 어린이 게이머를 위한 <한게임 키즈바둑>을 선보였고 <세입팡팡>, <상하이 마작> 등에 새로운 게임 모드와 맵을 추가했다. 또 KTH는 올 연말연시 기간 동안 <큐링>, <피싱온>, <탱키> 등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. 특히 코엑스 아셈광장의 스케이트장에 3D 캐주얼 롤플레잉게임인 큐링의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으며 뉴시게임인 피싱온도 지난달 20일부터 공개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.

이밖에 액트즈소프트도 최근 <라테일>, <서기 2030년 어니스와 프리키>, <라제스카> 등 신작 게임 3종을 공개했다.

글 양기석 기자